

고대 이집트 도서관의 원형, 페르 앙크(Per Ankh) 추적

Tracing Per Ankh as a Prototype of Ancient Egyptian Libraries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 론 | 3. 페르 앙크의 정체성과 쟁점 |
| 2. 고대 이집트 왕조와 신전도서관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은 종교적 성지인 동시에 공동체 중심이었다. 신전에 조성된 핵심공간 중의 하나는 신관과 서기관이 파피루스 등에 필사·보존한 시설이다. 그것의 보편적인 명칭은 ‘책의 집’과 ‘스크롤의 집’이었다. 당시 통칭은 페르 앙크였고, 현대적 용어로는 신전도서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의 성격 및 정체성을 규명한 후 신왕국 람세스 2세가 건립한 라메세움(장제전)의 다주실(페르 앙크) 문패에 걸려 있던 ‘영혼의 치유소’를 도서관으로 지목한 것이 타당한지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페르(집)와 앙크(생명)를 조합한 상형기호인 페르 앙크는 학습·연구센터, 의료시설과 요양원을 갖춘 치료·치유센터, 종교의식 및 영생축제의 거점, 필사실과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복합시설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페르 앙크가 도서관을 지칭한다는 종래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BC 4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카타이우스가 처음 소개한 라메세움 다주실 문패의 *Ψυχῆς ἰατρείον*는 BC 1세기 디오도로스가 라틴어 *Psychēs Iatreion*로 의역하면서 신성한 도서관의 모토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프시케(Psychēs)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여신, 이아트레이온(Iatreion)은 병원(진료소, 치유소)·약국을 의미하므로 라메세움의 페르 앙크는 파라오 영혼(Ka)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Psychēs Iatreion = Library*는 왜곡이자 왜전된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의 모토가 아니라 페르 앙크의 메타포다.

ABSTRACT

In ancient Egypt, temples were not only religious sanctuaries but also community centers. One of the core spaces created in the temple is the facility where priests and scribes copied and preserved texts on papyrus and other media. Its common designation was *pr-mjḫ* (House of Books) and the *per-(nw)-seshw* (House of Scrolls). The general term used during that time was *Per Ankh*, and the modern term for it is *temple library*. Therefore, this study first identified the character and identity of the *Per Ankh* attached to the temple, and then trac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signate ‘healing place of the souls’ depicted on the hypostyle hall (*Per Ankh*) in the Ramesseum (mortuary temple) built by Ramses II of the New Kingdom as a library. As a result, *Per Ankh*, a hieroglyph combining the *Per* (house) and *Ankh* (life), was revealed to be a multi-purpose complex facility consisting of a learning and research center, a treatment and healing center with medical facilities and sanatoriums, a religious ceremony and a center for the celebration of eternal life, a scriptorium and a library. Therefore, the traditional argument that *Per Ankh* refers to a library cannot be justified. In the same context, the inscription *Ψυχῆς ἰατρείον* on the doorplate of the hypostyle hall of the Ramesseum, which was first introduced by Greek historian Hecataeus of Miletus in the 4th century BC, was translated into Latin as *Psychēs Iatreion* by Diodorus Siculus in the 1st century BC and described as the motto of the sacred library. However, *Psyche* is the goddess of Greek and Roman mythology, and *Iatreion* means hospital (clinic, healing center) and pharmacy, so *Per Ankh* in the Ramesseum is a space to heal the soul of the pharaoh (Ka). Therefore, *Psychēs Iatreion = library* is a distortion and a mistranslation. It is not the motto of the library, but a metaphor for the *Per Ankh*.

키워드: 고대 이집트, 도서관의 원형, 페르 앙크, 생명의 집, 영혼의 치유소

Ancient Egypt, Prototype of a Library, *Per Ankh*, House of Life, Healing Place of the Soul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논문접수일자: 2023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10월 3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5-24,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4.005>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장 오래된 도서관 명칭은 무엇인가. 이를 소급하면 한자어 도서관(圖書館)은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유럽의 bibliothèque와 영미의 library를 번역·조어한 화제한어다. 라틴어 bibliotheca는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ίον(biblíon, 책)과 Θήκη(thékē, 상자)를 조합한 'βιβλιοθήκη'에서 유래하였고, 영어 library는 14세기 잉글랜드 작가 초서(Chaucer)가 철학자 보이티우스(Boëthius)의 『De Consolatione Philosophiae』에 기술된 bibliotheca를 번역한 것이다. BC 4세기 그리스계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한 고대 이집트에서 유명하였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명칭도 'Βιβλιοθήκη της Αλεξάνδρειας'였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를 사용되기 전에는 어떤 단어로 도서관을 표기하였을까. 그 본향인 이집트에서는 제1왕조(BC 3000) 때부터 나일 델타에서 자생하는 파피루스(papyrus, 이집트어 wadj(w3d), tjufy(twfy), djet(dt)에 필사하여 신전 부설도서관에 보존하였다. 그러나 신전도서관은 후세의 통칭 내지 범용어일 뿐 'Βιβλιοθήκη' 이전에 사용된 고유명사가 아니다. 고왕조에서 책은 파피루스 두루마리(papyrus scroll)를 의미하는 'mdꜣt'(medjat)였고, 원시 시나이 문자에서 채택한 pr(집)를 선치시킨 'pr-mdꜣt'(책의 집)가 도서관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였다(Hagen, 2019, 265). 창조신 아툼의 집(Pr-Atum), 아툼 대신전(Atum Pr-Hay)이 방증한다. 지식과 지혜의 신 토트(Thoth, 이집트어 Dḥwtj)가 선물한 페르 앙크

(Per Ankh)도 같은 맥락이다. 그 동안 앙크(생명)의 기원 및 상징을 둘러싸고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듯이 페르 앙크(생명의 집)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학교, 대학, 진료소, 마법센터, 필사실, 도서관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내외에서 도서관과 연계·논증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고대 이집트의 왕조와 파라오, 신화와 신전에 대한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속칭 책(파피루스)의 집과 통칭 신전도서관을 개관한 후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의 성격 및 정체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페르 앙크가 신전도서관을 지칭한다면 생명과 도서관은 어떤 밀접한 관계 및 불가분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페르 앙크가 신전도서관의 전유물 내지 대명사가 아니라면 에토스처럼 회자되는 그리고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가 금과옥조로 삼는 모토(도서관 = 영혼의 치유소)는 와전 또는 왜곡되었거나 오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사료와 논저의 추적, 통시적 비교와 해석, 몽상과 번역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난제다.

1.2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가 주목한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는 도서관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라메세움(Ramesseum)의 다주실 문패에 걸려 있던 문구를 '도서관 = 영혼의 치유소로 규정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사료와 논저를 수집하여 제시된 주장과 가설을 비교한 후 쟁점을 중심으로 페르 앙크의 성격 및 정체성을 추적하는 문헌연구에 방점을 두었다.

그룹에도 모든 역사적 추적이나 문헌연구가 그러하듯이 본 연구도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BC 20세기 전후의 고대 이집트로 소급하여 신전과 부설도서관을 연계·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및 언어적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립이 극심한 쟁점의 경우, 논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고고학적 증거나 고대 필사본이 발견되면 재해석,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1.3 선행연구 개관

고대 이집트 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다. 그 전사인 파리미드와 신전에 부설된 책(파피루스)의 집과 ‘생명의 집’인 페르 앙크를 도서관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추적·비교하거나 논증한 선행연구는 없다. 이에 관련 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루츠(Lutz, 1978, 36-39)는 람세스 2세의 신성한 도서관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도서관 모토인 ‘Ψυχῆς ἰατρεῖον’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추적하였다. 그는 디오도로스가 『History of the World, 원서명 Βιβλιοθήκη Ἱστορικὴ』을 통해 서양에 알렸지만 로마 애서가들은 알지 못했고, 15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포조(Poggio Bracciolini)가 라틴어로 번역한 후 도서관계 모토로 회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포르카로(Porcaro, 2002, 63-69)는 ‘근동 신전의 신성한 도서관’에서 이집트 신전도서관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고대 근동의 도서관은 기록관 이상이었고, 신관·사서가 필사를 독점하고 종교의식을 수행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루(Zulu, 2012, 1-26)는 그리스가 서양문명의 원천으로 부상하기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정보를 수집·조직하고 보존·제공하기 위한 고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도서관 및 사서의 뿌리가 고대 이집트임을 주장하였으나, 페르 앙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칸(Khan, 2013, 87-96)은 고대 이집트 도서관의 출현에 대해 약술하고, 특히 에드푸(Edfu) 및 람세스 2세의 도서관을 상술하였다.

2. 고대 이집트 왕조와 신전도서관

2.1 고대 왕조와 파라오

고대 이집트는 BC 31세기 나일강 상류의 아비도스(Abydos)와 네켄(Nekhen) 등에 존재한 여러 고왕국에서 유래한다. 초기 원주민은 거주지를 Ta Meri(사랑하는 땅) 또는 Tawi(2개의 땅)로 불렀으나, 나일강변의 비옥한 흑토를 지칭하는 케메트(궁궁궁, 영어 Kemet 또는 kmt)가 더 범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Kemui’(흑인)¹⁾로 지칭하였고, 초기 상형기호²⁾

1) 고대 그리스는 케메트의 피부색을 밝게 표현하고 그리스·로마문명에서 파생된 것으로 각색하였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은 그리스·로마인과 다른 영성을 기반으로 독특한 언어·문화·종교를 가진 민족이다.

2) 초기 상형기호는 이후 상형문자, 성곽문자, 민중문자로 발전하였다.


인 Medu-Neter(신의 말)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BC 332년 그리스계 마케도니아 왕국이 지배한 후 수도 멤피스를 지칭한 그리스어 'Aegyptos'³⁾를 차용해 이집트로 명명하였고, 원주민이 'Hapi'(나일 신) 또는 'Iteru'(강)로 불렸던 나일강도 그리스가 'Nelios'(강 계곡)를 빌어 나일강으로 개칭하였다.

그 장구한 역사를 구분한 최초의 인물은 마네토(Manetho)다. 태양신 숭배도시 헬리오폴리스(Heliopolis)의 대신관(또는 대제사장)으로 봉직 한 마네토는 프톨레미 3세(Ptolemy III, 재위 BC 246-222)의 명에 따라 무세이온 부설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이집트 통일왕조를 창설한 나르메르(Narmer, 재위 BC 3273-2987)에서 제30 왕조 제3대 파라오 넥타네보 2세(Nectanebo II, 재위 BC 358-340)까지 총 561명을 그리스어로

집대성한 『Aegyptiaca』(이집트 역사, 전3권)를 저술하였다. 원본은 세라피움(Serapeum)에, 사본은 무세이온 부설도서관에 보존하였으나, 후자는 BC 48년 이집트 내전 때, 전자는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 재위 379-395)가 신전 폐쇄령을 내렸을 때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마네토의 역작은 후대 여러 연대기⁴⁾ 집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고대 이집트를 <표 1>처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대별하고 31개 왕조로 세분하였다(Bunson, 2002, 105-108). 그 시작은 창시자인 나르메르이고, 마지막은 프톨레미 왕조의 최후 여제 클레오파트라 7세(Cleopatra VII, BC 69-30)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현재까지 준용되고 있다.

요컨대 고대 이집트는 BC 3000년경 제1왕조부터 로마 속주로 전락한 BC 30년까지다. 그

<표 1> 고대 이집트 왕조와 주요 파라오

| 구분(왕조) | 연대(BC) | 유명한 파라오(재위, BC) | 비고(지도) |
|-----------------------|-----------|--|---|
| 선왕조(왕조 이전) | - 3000 | • Scorpion I(32 세기), Narmer(Menes, 3150-3100) |  |
| 초기 왕조(1-3대) | 3000-2575 | • Djed(Wadji, 약 2980), Djoser(2686-2649) | |
| 고왕국(4-8대) | 2575-2134 | • Khufu(2589-2566), Khafre(2558-2532), Pepi I(2289-2255), Inyotef I(2134-2118) | |
| 제1중간기(9-11대) | 2134-2040 | | |
| 중왕국(11-14대) | 2040-1640 | • Montuhotep II(2007-1956), Amenemhet I(1991-1962), Senusret I(1971-1926), Thutmose I(1506-1493) | |
| 제2중간기(15-17대) | 1640-1550 | | |
| 신왕국(18-25대) | 1550-1070 | • Hatshepsut(1478-1458), Thutmose III(1458-1425), Amenhotep III(1388-1351), Akhenaten(1351-1334), Tutankhamun(1332-1323), Ramses II(1279-1213) | |
| 후기 왕조(25-31대) | 712-332 | • Darius I(521-486), Xerxes I(486-465) | |
| 프톨레미 왕조 (마케도니아 왕조) | 332-30 | • Alexander the Great(332-323), Ptolemy I(304-284), Cleopatra VII(51-30) | |

- 3) 그리스 신화에서 Aegyptus 또는 Ægyptus(고대 그리스어 Αἴγυπτος)는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왕이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영혼의 궁전을 의미하는 아이킵토스가 멤피스 수호신이자 공예·기술의 신 프타(Ptah)다.
- 4) 1세기 세푸스(Josephus, 37-100)의 『유대 전쟁사』(Ioudaïkou polemos)와 『유대 고대사』(Antiquitates Judaicae), 기독교 작가 아프리카누스(Africanus, c.160-240)가 천지창조에서 221년까지를 기록한 『연대기』(Chronographiai, 전5권), 그리스 역사가 겸 가이사라(Caesarea) 주교를 역임한 유세비우스(Eusebius, 260/265-339)의 연대기(Chronicle, Pantodape historia) 등이 있다.


지형은 나일강 상하로 구분할 수 있다. 상 이집트는 신전과 암굴 무덤이 많은 지역이고, 하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밀집한 곳이다. 그러나 BC 1700년 기마민족 히소스(Hyksos), BC 108년 리비아족, BC 728년 누비아, BC 671년 아시리아, BC 601년과 569년 바빌론, BC 525년 페르시아,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 BC 31년 로마 제국 등 많은 외침에 시달리거나 정복되었다. 그럼에도 고대 이집트가 신화와 종교를 기반으로 창출한 문명은 그리스에 이식된 후 로마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로마 문화의 모태로 간주할 수 있다.

2.2 이집트 신화와 신전

신화는 이집트 문명의 배후이자 동력이다. 주요 신으로는 태양신 라(Ra), 혼돈·폭풍·폭력의 신 세트(Set), 죽음·부활·다산의 신 오시리스(Osiris), 자연·마법·치유의 여신 이시스(Isis), 라의 조연자와 파라오를 상징하는 하늘의 신 호루스(Horus), 미와 사랑의 여신 하토르(Hathor), 문자·지혜·마법의 신 토트(Thoth), 지식·학문·언어·서기의 여신 세샤트(Seshat)를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신은 세트, 오시리스, 호루스, 토트, 세샤트다. 세트는 형제 오시리스를 살해하고 호루스와 경쟁하다가 실수로 그의 정액을 삼켰고 이마에서 토트가 탄생하였다. 라의 입술에서 또는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설도 있다. 세샤트는 과학·글쓰기·지혜·지식의 여신이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신 토트가 문자·언어 창

조자와 서기관이고, 그의 여성성이자 딸 또는 아내인 세샤트는 프톨레미 왕조 이래 책의 수호자와 도서관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이러한 이집트 신화는 종교인 동시에 영생의 동인이었다. 서양의 인간관이 육체와 영혼을 조합하였다면, 이집트인은 영혼을 세분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매개체인 Ren(이름), Ib 또는 Jb(심장), Sheut(그림자), 안내하는 영혼인 Ba(영, 인격)와 Ka(혼, 생명력)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였다. 그 가운데 요체는 ‘바’와 ‘카’다. ‘바’는 고인의 육체에 머물다가 장례를 통해 하늘로 날아가고 ‘카’는 미라로 환생하며, 둘은 결합되어 ‘아크’(Akh, 불멸)에 도달한다고 믿었다. ‘카’는 오직 신과 파라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파라오는 신과 동격인 존재로서 신과 인간을 중계하고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에 오시리스의 화신인 파라오는 나일강 동편과 서편의 대다수 도시에 영생의 궁전인 피라미드에 이어 많은 신전(temple)⁵⁾을 건립하였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은 천상(신계)과 지상(인간)의 인터페이스이자 연결 통로였다. 종교 의식과 기도를 위한 시설인 동시에 신들이 거주하는 성소였다. 실제 이집트에서 신전을 지칭한 범용어도 ‘신들의 저택’(hwt-ntr, )이었다(Snape, 1996, 9). 신전을 건립하는 궁극의 목적은 태양신 라의 딸이자 월신 토트의 아내로 법과 정의, 조화, 진리, 지혜를 대변하는 마아트(Ma'at)를 봉헌하는데 있다. 주요 신전과 후술할 상형기호 앙크(Ankh)의 흔적을 집약하면 <표 2>와 같으며, 다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5) 신전은 라틴어 templum(신을 숭배하기 위한 건물)에서 유래하였다. 협의로는 고대 이집트로 한정하는 반면에 광의로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등의 사원, 교회, 성당, 사찰, 모스크, 회당, 신사 등을 포괄한다.

〈표 2〉 고대 이집트의 주요 신전 개요와 앙크 흔적

| 신전 명칭 | 위치 | 개요와 특징 | 앙크 흔적 |
|--------------------------------|-------------------------------|--|---|
| 덴테라 (Dendera, 일명 Hathor) | 나일강 동안의 덴테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2250년 페피 1세(Pepi I)가 착공하고 아들 Menrenre I(재위 2256-2249) 때 완공된 신전 단지(면적 40,000㎡) 중심 신전은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호루스 부인)에게 봉헌된 하토르 신전(W 35×L 79m) 하토르 신전은 로마황제 트라야누스(Traianus) 때까지 개축됨 |  |
| 카르나크 (Karnak) | 룩소르 (나일강 동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1900년대 제12왕조 제2대 파라오 세누스레트 1세(Senusret I, 재위 BC 1971-1926)이 착공, 프톨레미 왕조(BC 305-30) 때 완공 카르나크 3대 수호신(Amun, Mut, Khonsu)에게 봉헌된 신전 복합단지로 이집트 신전 중 최대 규모(1.5km×0.8km) 대표 건물은 134개(최고 21.3m)로 구성된 열주홀(W 52m×L 103m)임 |  |
| 하트셉수트 (Hatshepsut) | 룩소르 서쪽 (Deir al-Bahari 절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1400년대 중반 제18왕조 제5대 파라오 하트셉수트(재위 1478-1458)가 태양·공기의 신 아문과 자신을 위해 건립한 계단식 장제신전(영안실 D 13.25m×W 5.25m×H 6.35m의 아치형 천장) 북쪽 끝에 아누비스 신전, 남쪽에 하토르 신전이 위치함 |  |
| 룩소르 (Luxor) | 나일강 동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1300년대 아멘호테프 3세(Amenhotep III)가 추진, 투탕카멘(Tutankhamun) 등이 완공, 람세스 2세가 증축(길이 260m) 룩소르(테베) 수호신 아문-라(Amun-Ra)를 경배하기 위한 룩소르 최고 및 세계 최대 신전단지(당시 규모 W 55m×L 190m) 인근에 아멘호테프 3세 예배당, 람세스 2세 신전(Ramesseum)이 있음 |  |
| 아부심벨 (Abu Simbel) | 아스완 계곡 (나세르 호수 서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1265년 람세스 2세 때 건립(24년 소요)된 암석 신전 대신전은 태양신 라(Ra), 창조신 라-호라크티(Ra-Horakhty)와 프타(Ptah)에게, 소신전은 람세스 2세 아내 네페르타리(Nefertari)로 의인화된 여신 하토르에게 봉헌 1968년 서쪽 사막 고원으로 해체·이전(W 28m×H 12m) |  |
| 필레 (Philae, 일명 Isis) | 아스완 댐 하류의 필레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380-362년 넥타네보 1세(Nectanebo I) 때 건립된 복합단지(W 120m×L 380m) 모성·다산·마법·치유의 여신 이시스(Isis, 오시리스 아내)에게 봉헌한 신전으로 고전 이집트 양식으로 건립된 마지막 신전 1972년 아스완 하이댐 건설 때 유네스코 지원으로 아길리카섬(Agilika island)으로 이전 |  |
| 에드푸 (Edfu, 일명 Horus) | 룩소르와 아스완 사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237년 프톨레미 3세가 착공, BC 57년에 완공된 신전으로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함 태양, 하늘, 수호, 치유의 신 호루스(Horus)에게 봉헌 카르나크 신전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신전(W 376m×L 79m) |  |

첫째, 계곡신전(Valley Temples)은 고왕국 초기에 피라미드와 함께 건립되었다. 피라미드 근처에는 묘지 신전을, 약간 떨어진 곳에는 성소 방문객의 정화의식을 위한 신전을 건립하고 종종 긴 통로로 피라미드와 연결하였다. 제4왕조를 창설한 파라오 스네프루(Sneferu, 재위

BC 2613-2589)가 건립한 굴절 피라미드(Bent Pyramid)의 계곡신전, 기자의 카프레 계곡신전(Khafre's Valley Temple) 등이 있다.

둘째, 태양신전(Solar Temples)은 고왕국 제5왕조 때부터 태양신 라를 모시기 위해 건립한 신전을 말한다. 후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12


왕조 제2대 세누스레트 1세(Senusret I, 재위 BC 1971-1926)가 건립한 라-아툼 신전, 아부심벨의 랍세스 대신전, 테베의 카르나크 신전, 프톨레미 왕조의 헬리오폴리스 신전단지 등이다.

셋째, 장례신전 또는 장제전(Mortuary Temples)은 망자 파라오의 '카'를 유지하기 위해 생자가 제물을 바치는 장례용 신전이다. 신왕국 제18왕조 제5대 여왕 하트셉수트(Hatshepsut, 재위 BC 1478-1458)의 데르 엘 바하리(Deir el-Bahari) 장제전, 제19왕조 제2대 파라오 세티 1세(Seti I, 재위 BC 1302-1290)의 아비도스 장제전, 제19왕조 제3대 랍세스 2세(Ramesses II, BC 1290-1224)의 룩소르 라메세움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이집트 신전에는 신·파라오·개인 등의 조각상, 귀중한 전리품과 의식용품,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존·전시하였다(Hernández, 2017, 4). 따라서 종교적 측면에서는 성소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토지와 재산을 통제하고 곡물을 관리하는 구심체이자 거주와 일상이 혼재하는 공동체였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지배계층을 위한 학습센터였고, 지식문화적 관점에서는 필사·복제·보존한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보고였다.

2.3 책과 신전도서관

2.3.1 책과 사자의 서

고대 이집트에서 책을 지칭한 용어는 고왕국 때부터 범용된 *mdjt*(medjat, )다. 주로 파

피루스 두루마리와 그 위에 필사된 문서와 서신 등을 총칭한다. 다만, 책 제작에는 파피루스, 점토판, 나무판자, 조개껍질, 동물 가죽, 돌 등이 혼용되었으며, 특히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바구니, 신발, 상자, 매트, 밧줄, 배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책으로 한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BC 3000년을 전후로 재료가 용이하고 신전이나 무덤으로 운송하기 쉬운 파피루스를 책의 주된 매체로 활용하였다.

그 대명사는 신왕국 초기(BC 1550)부터 파피루스에 필사한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⁶⁾다. 당시 이집트인은 '낮으로 가는 책'(Book of Going Forth by Day) 또는 '하루를 시작하는 주문'(Spells for Going Forth by Day)으로 지칭하였다(Scalf, 2017, 23). 제19왕조(BC 1292-1190) 때 파라오 223명의 연대기를 신관문자로 필사한 '토리노 파피루스'(Turin Papyrus, 165매)를 1842년 독일계 이집트학자 랍시우스(Lepsius)가 '이집트 사자의 서'(Ägyptisches Totenbuch)로 명명한 것에서 기원한다(Scalf, 2017, 29). '사자의 서'에서 호루스의 화신인 파라오를 사후 오시리스와 동격으로 표현한 사례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개념화 및 믿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고대의 세계, 종교문헌, 이집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1888년에 신왕국 제19왕조 때 테베의 서기관을 역임한 아니 파피루스(Papyrus of Ani)가 발견되었는데, 그의 사후 심판(심장 무게 달기)을 기록한 주문 43(나는 영원의 신, 오시리스다, )이 방증한다. 그 유형



6) 고대 이집트인이 내세에서 심판을 통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주문, 기도, 헌사, 행위를 파피루스 등에 상형문자로 기록한 후 미라와 함께 관 속에 넣은 장례용 문서 겸 내세 안내서다. 신왕국(BC 1550-1070년) 때부터 '사자의 서'로 지칭되었다. 주문은 대개 200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초기 왕조 때부터 파라오 전유물이던 피라미드 텍스트(pyramid text)와 거기서 BC 20세기 경 파생된 코핀 텍스트(棺柩文, coffin text)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고왕국 후기(BC 22세기)로 소급될 정도로 오래된 장례문서로 프톨레미 왕조 말기(BC 50)까지 사용되었다. 후자는 제1 중간기(BC 21세기)부터 무덤 벽면, 석비, 미라 내장을 담은 용기, 미라 마스크, 파피루스 등에 기록한 장례용 주문의 집합을 말한다. 전자가 천상에 방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오시리스가 통치하는 내세에 치중하였다. 고대 이집트인은 무덤을 떠난 ‘바’가 햇빛 속으로 날아가 태양신과 함께 천상을 여행한다고 믿었다. 부언하면 사후에 분리된 영혼이 명계(Duat)를 거쳐 오시리스의 낙원(Aaru)에서 재생·부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신관과 서기관은 페르 앙크에서 망자를 수호하고 낙원으로 인도하는 ‘사자의 서’를 만들었다. 서기관 주도 하에 상형문자(hieroglyphs),⁷⁾ 채색 삽화, 마법 공식을 파피루스, 린넨, 양피지에 필사해 시신과 함께 매장하였고, 종종 장례문서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파라오 피라미드의 벽면에 그리거나 개인 무덤에 넣은 ‘사자의 서’는 부활과 영생을 염원하는 내세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라미드 벽면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Algarvio, 2023, 27). 그러나 시공간을 통한 공동체 기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간주할 경우, 통칭 ‘사자의 서’는 서사적 개념이나 물리적 측면에서 현대 책과 다름

에도 고대 이집트에서 범용된 텍스트를 대변한다. 신화와 종교, 파라오 행적, 학문과 지식, 삶을 필사한 책의 원형으로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극소수가 현전하는 반면에 신전과 무덤에 보존된 ‘사자의 서’는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발굴되고 있다. 그 거점은 멤피스(Memphis), 테베(Thebes), 아비도스(Abydos), 에드푸(Edfu), 아르마나(Amarna), 콥토스(Koptos), 아크밈(Akhmim) 등이다.

2.3.2 신관·서기관과 신전도서관

고대 이집트의 통치형태는 우주를 지배하는 신(Ra, Orisis, Isis 등)이 보호하는 엄격한 계층 구조에 기반을 둔 군주제였다. 따라서 사회계층도 <그림 1>과 같이 대체로 파라오, 고위 관리와 신관, 서기관, 군인, 장인과 상인, 농민과 노동자, 하인과 노예의 6단계로 구성하였다. 그 가운데 신전과 부설도서관에 보존할 지식을 필사·관리하는 계층은 신관(priest, )⁸⁾과 서기관(scribe, )이다.



〈그림 1〉 고대 이집트 사회계층

7) 그리스어 ‘hieros’(신성)와 ‘gluphien’(새기다)에서 유래한 ‘신성한 글자’를 말한다. 그것의 변용이 서체 및 간략화에 따른 신관문자(hieratic, BC 2925-), 신성문자(hieroglyphic, BC 2740-), 민중문자(demotic, BC 6세기), 콥트문자(Coptic, BC 3세기)이며, 원시 시나이 문자(페니키아 알파벳)로 진화하였다.

8) 현재 신관은 특정 종교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사제는 가톨릭(기독교) 성직자를 말한다.

먼저 신관은 고왕국(BC 2613-2181)에서 기자(Giza)와 사카라(Saqqara)에 같은 대규모 무덤단지가 건설될 때 등장하여 확립하였다. 토트가 보호하는 신(ntr)의 종(hm)을 의미하는 신관(hm-ntr)⁹⁾은 신을 봉헌하는 자, 파라오의 영적 조연자, 신과 인간의 중재자, 신전 관리자, 축제 주관자였다. 신관의 계급은 상급·중급·하급으로 나누었다. 파라오가 임명하는 세습직 국가관리(주로 남성)인 상급 신관은 성소 수호자 및 신탁자다. 경륜을 갖춘 상급 중에서 선임되는 최고 직위의 대신관(hm-ntr tpj)¹⁰⁾은 파라오를 대신해 신전의식을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조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고(Khan, 2013, 92-93), 부속 도서관 또는 기록 보존소를 관리하였다. 신의 사제(it-ntr)로 호칭된 중급 신관은 하급에서 경력을 쌓은 후 승급하며, 하급 신관은 제사·축제 준비, 신상 이동, 예술품 제작 등을 맡았다. 그들은 지위와 계급을 불문하고 의식을 주관하고 주문을 낭독해야 하므로 상형문자, 천문학과 점성술, 과학 등에 해박하였으며,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주술사와 신벌(神罰)로 간주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신관보다 한 단계 낮은 서기관은 마법의 주문, 공문서, 계약서, 곡식·식량 공급, 인구조사, 의료절차, 세금 계산, 나일강 홍수 측정 등을 기록·관리하였다. 신관의 관리 하에 기록물을 작성·보존하면서 신전과 무덤의 벽면에 상형문자를 새겼다. 대규모 신전에서는 서기관

이 사서를 겸하였다. 서기관이 되려면 5세를 전후로 페르 앙크(서기학교)에 입학해 최소 12년간 1,000개 이상의 고유한 상형문자 중 700개 이상을 익혀야 한다. 서기학교는 읽고 쓰기를 전담하는 서기관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동시에 예비신관 양성과정이었기 때문에 귀족과 신관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었다. 서기관에 임용되면 행정과 군대, 신전과 신권 등에 관여하고 군복무, 세금 납부, 육체적 노동이 면제되는 특혜가 주어졌다. 고대 이집트어로 서기관을 지칭하는 ‘세쉬’(sesh)는 가장 존경받는 칭호 중의 하나였다. 토트는 신의 서기관이었고, 세샤트는 파라오의 전기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보존·관리하는 도서관의 여신이었던 이집트 신화가 방증한다.

한편,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왕립도서관은 프톨레미 1세(Ptolemy I, 재위 BC 305/304-282) 및 2세(재위 BC 284-246) 때 왕궁지구 무세이온(MOYΣEION, Mouseion)에 부설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다. 당시 그리스어로는 ‘Βιβλιοθήκη της Αλεξάνδρειας’, 로마 제국에서는 ‘ALEXANDRINA BYBLIOTHECE’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BC 1265년 람세스 2세가 건립한 아부심벨 신전의 부속도서관이 대변하듯이 신전도서관은 중왕국(BC 20세기) 때부터 존재하였다. 그 명칭은 책의 집(pr-mdꜣt, per-medjat), 신성한 책의 집(per-medjat-netjer), 큰 집(파라오, 궁전)의 신성한 책의 집(per-medjat-netjer-per-aa), 생명의 집(per-an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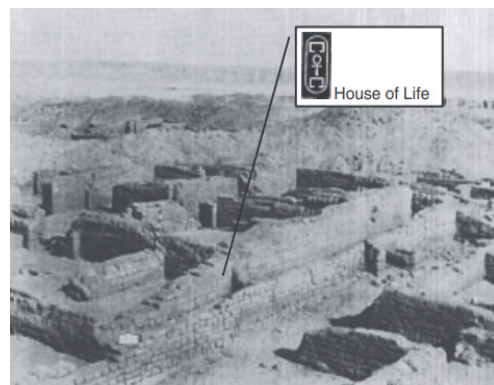
9) 소규모 신전에서는 의식 및 정화업무를 맡은 신관을 ‘web 또는 wab’, 장례의식을 주관하는 신관을 ‘sem priests’, 장례의식을 집행하는 신관을 ‘hem-ka priests’로 별칭하였다.

10) 대신관 중 ‘첫 번째 선지자’를 말한다. 신들에 따라 대신관에게 특별한 호칭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가령 창조신 프타(Ptah)의 대신관은 ‘기술을 잘 지휘하는 자’, 라(Ra)의 대신관은 ‘안목이 탁월한 자’, 토트(Thoth)의 대신관은 ‘양자 간의 중재자’, 크눔(Khnum)의 대신관은 ‘만물 창조자’로 별칭하였다.

신성한 말·상형문자의 집(per-medw-netjer), 글의 집(per-(nw)-seshw), 의식 기록의 집(khwt-jrjw), 저술실(js-n-seshw) 등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인 명칭은 고왕국 제3왕조 때부터 사용된 '책의 집'이며, 중왕국 때는 스크롤의 집(per-(nw)-seshw)¹¹⁾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 왕조를 달리하며 다양한 용어, 예컨대 신전 및 궁전의 출입문·현관의 사무실이나 부서 또는 법률문서를 보관하는 장소(areryt, 또는 aryt, areret), 비밀문서의 방(js-nkherj-khetemw), 사무실 또는 문서보관소(jset), 왕실 기록관(per-a-neswt), 기록보관실(kha-n-seshw) 등도 사용되었다(Zinn, 2012, 4061-4062). 그러나 고대 이집트 신전에 부설된 도서관을 지칭한 범용어는 '생명의 집'을 의미하는 페르 앙크다(Lundquist, 1993, 25). 신전 내부에 석조로 건축된 책의 집이 일상적 종교의식용 책과 물품을 보관한 소형 특수도서관이라면, 신전 내 또는 인근에 흙벽돌로 조성된 페르 앙크는 많은 텍스트를 집적한 대형 도서관을 포함하는 아카데미로써 다양한 지식을 창출·보존하였다(Zinn, 2012, 4062). 그리고 내부의 대다수 다주홀에는 지식의 신 토트와 도서관의 여신 세샤트가 장식되어 있다. 특히 '책의 여인, 글쓰기의 여인, 도서관의 여성, 위대한 자'로 칭송된 세샤트를 조각하거나 봉안한 것은 도서관의 여신에 대한 파라오와 신관의 파토스이자 오마주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신전도서관은 관용구 및 다양한 호칭을 감안하면 토트의 선물인 책(파피루스 두루마리)을 보존하고 학습과 지식을

제공하는 신성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 앙크의 요체였다. 사서 역할을 겸한 신관과 서기관은 책과 문서를 관리하면서 지배계층 위주의 지식습득과 학술연구 등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고왕국 말기부터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신전 도서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제18왕조 파라오 아크나톤(Akhenaten, 재위 BC 1353-1336)이 통치할 때 수도였던 <그림 2>의 아마르나(Amara) 유적지 벽돌에 기록된 페르 앙크가 가장 오래된 흔적이다(Zinn, 2012, 4061). 이어 BC 1250년 람세스 2세가 건립한 라메세움 내의 페르 앙크도 여러 문헌과 기록에 등장한다. 그럼에도 페르 앙크의 성격 및 용도에 대해서는 출생·결혼·사망 등을 기록한 문서고, 예배 찬송가를 필사·보존한 기록실, 종교행사 및 영생축제의 장, 신관과 서기관을 양성하는 직업학교,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아카데미), 병원(진료소)·약국과 마법(치유)센터, 필사실과 도서관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림 2> 아마르나의 페르 앙크 유적

11) per는 집, nw는 스크롤, seshw는 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per-(nw)-seshw는 스크롤(책)의 집이며, 고대 이집트에서 문서나 글을 보관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3. 페르 앙크의 정체성과 쟁점

3.1 앙크의 기원과 상징

고대 이집트에서 앙크(Ankh, 우)는 초기 왕조 때 등장한 상형기호 중의 하나다. 이집트인은 생사를 영생의 일부로 간주하여 ‘생명, 생명의 숨결, 생명의 고리 또는 열쇠, 영원한 생명’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앙크를 필멸과 내세를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앙크의 기원과 상징에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남녀 성기(위쪽 다원형은 자궁, 아래쪽 T는 페니스)의 결합이 생식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한다는 입장(Webb, 2018, 86), 여성 생식기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이시스의 매듭’(Knot of Isis)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Budge, 1989, 315-316), 앙크와 어근이 같은 샌들(nkh)이 일상적 도구였기 때문에 고리가 발목을 감싸고 수직 기둥이 발 밑에 부착된 샌들 스트랩에서 개발되었다는 시각(Gardiner, 1938, 157-179), 내세는 현생을 반영한다는 믿음과 신들이 자주 들고 있는 모습에 착안해 거울이라는 해석(Ignatov, 2004, 1),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신격화된 황소(Apis)의 중추·천골과 요추·마른 음경을 지칭한다는 가설(Gordon & Schwabe, 2004, 102-106)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료를 종합해 앙크의 함의 및 상징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앙크는 영생을 향하는 열쇠와 통로다. 고대 이집트인에게 지상 여행은 영생의 일부였

다. 그들은 앙크 상단의 타원형 고리를 영혼의 주기적 순환으로 인식하여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죽은 파라오 입술에 올려놓았으며, 무덤에도 그려 넣었다. 앙크의 고리는 투시, 예언, 치유 등 초능력을 주고 영생과 무한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앙크는 신성한 권위를 상징한다. 신들의 왕관과 부조, 신전 홀과 벽면, 파라오의 이름과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세에 요절한 투탕카멘(Tutankhamun, 재위 BC 1332-1323)의 이름은 세 음절(Tut, ankh, amun)을 조합한 것이다.

셋째, 앙크는 생명의 원천이자 생식을 상징한다. 이집트인은 초기 왕조부터 여신 이시스와 남신 오시리스가 결합해 우주를 창조하고, 매년 나일강변의 비옥한 땅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또한 상단의 타원형은 여성 자궁, 하단의 세로선은 남성 생식기로 간주하여 생명을 탄생시키고, 영계와 현세의 경계인 중간의 수평선은 생명과 죽음, 영혼과 부활을 의미한다.

넷째, 앙크는 조화와 균형의 이원론을 상징한다. 십자가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하늘과 지상, 태양과 달, 신성과 세속, 추상과 구체, 상하, 남녀, 육체와 영혼 등 대립적 요소의 결합¹²⁾ 내지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남의 지점과 중심을 연상시키며, 죽음을 초월하는 불멸을 나타낸다.

다섯째, 앙크는 치유와 마법의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직선은 생애, 수평선은 초월할 수 없는 경계, 고리는 에너지가 수렴되는 지점으로서의

12) 사랑·여성의 신 이시스와 죽음·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결합이 대표적이다. 오시리스가 세트에 의해 죽고 유해가 흩어지자 아내 이시스는 시신을 수습·조립한 후 마법의 힘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잉태해 호루스를 낳았다. 수호·복수의 신 호루스가 들고 있는 앙크는 보호, 마법의 힘, 부활을 상징한다.

회귀를 의미한다. 이에 고대 이집트인은 신계와 인간의 이해, 우주 비밀에 대한 몰입, 불멸의 사랑에 대한 표시, 가족과 행복의 수호자, 남녀의 에너지 결합, 모든 부정과 악령의 방패막이, 행운과 기원 등 부적으로 범용하였다. 앙크의 초자연적 치유와 마법의 힘을 믿은 의료계는 종종 휴대하였고, 대중은 일상의 목걸이로 착용하였으며, 린넨으로 포장한 시신과 함께 관 속에 넣었다(Bunson, 2002, 34).

이처럼 앙크는 천지 결합, 이시스 매듭, 남녀 생식기와 잉태, 나일강 수평선과 떠오르는 태양, 죽음과 영생의 열쇠, 마법과 부적 등을 상징한다. 고대 신전 벽면, 파라오 이름과 부조, 무덤과 비문, 사자의 서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절대적 권위의 상징, 종교적 문양, 문화적 아이콘, 예술적 모티브로 범용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앙크가 상징하는 영생이 그리스도 죽음 및 부활에 대한 믿음과 상통하기 때문에 콥트문자로 형상화한 물고기(Ichthys 그리스어 ἰχθῦς)의 상징(☩)을 사용하던 이집트 기독교도가 BC 4세기경 앙크를 '크룩스 안사타'(Crux Ansata, 손잡이 달린 십자)로 변형·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있다(Kozodoy, 1971, 33-40; Muc, 2008, 97). 내세·생명·불멸을 상징하는 앙크와 그리스도의 삶·죽음·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대비한 <그림 3>을 보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이에 이집트 역사학계는 콥트 기독교의 십자가가 앙크를 모방한 기호적 확장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기독교 역사가는 이집트인이 십자가 위에 고리를 달아 사용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C 3000년 전후로 등장한 앙크와 4세기경 출현한 십자가의 시간차를 감안하면 기독교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림 3〉 앙크와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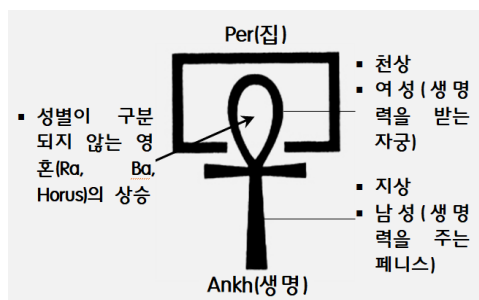
요컨대 고대 이집트에서 앙크는 상단의 타원형 고리와 중간의 십자를 조합한 상형기호다. 고리는 하늘과 여성을, 십자는 지상과 남성을 상징하며, 양자의 결합은 신성한 창조의 힘과 영생불멸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수천 년간 신화와 종교, 문화와 일상의 키워드였던 앙크의 기원에 대한 보편화된 지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3.2 페르 앙크의 성격과 정체성

고대 이집트는 풍부한 신화, 종교적 신념, 건축적 결자, 경이로운 문화가 혼재하는 인류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고다. 그 흔적을 방증하는 요체의 하나가 신들의 영지인 신전이고, 신관과 서기관들의 열정이 응축된 압권은 신전 부설의 페르 앙크(Per Ankh)다.

이집트 상형문자 페르(Per, 고대 이집트학에

서는 Pr)는 초기 왕조 때 원시 시나이 문자에서 채택되었다. 그 의미는 '신을 봉헌한 신전, 왕의 거처인 궁전, 개방형 출입구가 있는 평면형 '집'을 말한다. 여기에 개인명, 신의 이름이나 장소를 결합하면 '...의 집'이 된다. 예컨대 Pr-Atum은 신왕국 제20왕조의 초대 파라오 세트나크테(Setnakhte, 재위 BC 1189-1186)가 건설한 도시이고, Pr Djed는 초기 이집트인 무덤을 지칭하며, Pr-Medjat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집을 의미하는 페르(□)와 '생명'을 뜻하는 앙크(⋈)를 조합한 <그림 4>의 페르 앙크(□⋈)는 '생명의 집'(House of Life)을 말한다. 그 기원은 고왕국으로 소급되며, 신왕국 때 번성하였다. 토리노 재판 파피루스(Turin legal papyrus)에 따르면 BC 1155년 람세스 3세(Ramesses III, 재위 BC 1186-1155)를 암살하려던 하렘음모(Harem Conspiracy)¹³⁾ 때 처형된 28명 중 관리 2명이 페르 앙크의 신관이었다(Goedicke, 1963, 71-92). 그럼에도 페르 앙크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습장소, 의료·치유센터, 필사실과 도서관 등 다양한 가설이 혼재한다. 이들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페르 앙크의 기호적 의미

첫째, 대다수 이집트학자는 신의 종을 양성하는 학교나 대학 등 학습·연구센터로 간주하였다(Budge, 1920, 238; Pendlebury, 1934, 134; Gardiner, 1938, 176; Thompson, 1940, 1; Bunson, 2002, 300; Zulu, 2012, 8; Zinn, 2012, 4061-4062). 그 바탕에는 페르 앙크가 파피루스 제작, 신성한 필사, 기록물 보존을 위한 장소를 넘어 신전이 학교 및 도서관과 결합된 영적·지적 활동의 중심지였다(Schullian, 1990, 310; Porcaro, 2002, 70; Zulu, 2012, 9)는 인식이 깔려 있다. 페르 앙크의 교육적 기능은 서기관 양성이 대변한다. 왕가, 사제, 귀족의 자녀는 페르 앙크에서 문자를 익히고 수학을 공부하였고, 우수한 학생은 상형문자 필사법을 습득한 후 서기관이나 신관에 임용되어 종교의식을 주관하였다. 페르 앙크의 학술적 기능은 서기관이 필사·수집한 신화, 철학, 의학, 수학, 천문학과 점성술, 지리학, 장례의식, 시신 방부처리 등 다양한 자료를 신관, 학자, 의사 등이 독서·연구·저술하는 공간으로 간주하였다는 인식이 방증한다. 페르 앙크는 지배계층을 위한 학교(대학)이며, 부설도서관은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에 불과하다는 논지다.

둘째, 일부 의학자 및 마술계는 페르 앙크를 의료·치유·마술의 거점으로 규정하였다(Gardiner, 1938, 168-169; Birchette, 1973, 302-308; El-Gammal, 1993, 37-48; Serageldin, 2013, 395-404). 고대 이집트에서 질병은 의술과 약으로 치료하고, 내면적 악마로 간주한 신의 벌은 마법으로 퇴치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의학적 측면에서 페르 앙크는 신관, 궁정 의

13) BC 1155년 2월 15일, 람세스 3세의 두 번째 부인 티예(Tiye)가 나일강 서쪽 테베 언덕의 왕실(Medinet Habu) 하렘에서 아들 펜타웨르(Pentawer)를 왕위에 올릴하기 위해 람세스 3세의 암살을 모의한 사건이다.

사·약사를 위한 의학교육과 의료센터였다. 아비도스, 아르마나, 테베, 덴데라 등 주요 신전의 페르 앙크에는 의료시설과 요양원 외에 약초·화학물질·제품을 연구할 약학연구소와 약초원도 부설되었다(El-Gammal, 1993, 41-42). 그 결과, 의학수준은 인접국에서 의사를 요청하거나 유학생을 파견할 정도¹⁴⁾로 높았고(Hall, 2014, 20-30), 의학 전문화 및 의사 계층구조 유지에 기여하였다(Gardiner, 1938, 157-179). 다음으로 마법은 종교와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을 찾는 방편이었다. 의학 및 마법이 기록된 파피루스에서 지식을 습득한 후 주문 암송, 장례의식, 미라 제작 등에 대한 기술을 체득한 강사-신관(kheri-hab, lector priests,¹⁵⁾과 의사-신관(wabu, physician priest)은 질병을 치료하고, 행운과 내세를 기원하였다. 그들이 암송하는 주문에는 신화 속 인물과 동일시하는 내용¹⁶⁾이 많았다. 특히 의사-신관은 질병을 치유한 세크메트(Sekhmet), 호루스 눈을 복원시킨 토트, 오시리스를 소생시킨 이시스 중에서 최초 의학의 여신인 세크메트를 숭배하였다. 요컨대 고대 이집트에서 종교와 의학, 신관과 의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 앙크에서도 의술과 마술이 혼재하였다.

신관이 환자에게 손을 얹고 주문을 암송하면 강력한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로 인해 치유되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페르 앙크는 의학교육 기관인 동시에 문자·마법의 신 토트가 설립한 마법사 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페르 앙크가 '생명의 집'인 것도 의학과 마법을 이용한 치료 및 퇴마와 가장 밀접하다.

셋째, 일부 학자 및 사서는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를 필사실 또는 그것을 겸한 도서관관내지 기록관으로 재단하였다(Birchette, 1973, 302-308; Wilkinson, 1992, 74; Bunson, 2002, 212; Webb, 2013, 21-32, Scalf, 2017). 이러한 주장은 글쓰기가 신과 소통하기 위한 신성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그 주역인 신관과 서기관이 텍스트를 필사·보존하는 도서관이 존재해야 페르 앙크가 학습센터나 의료시설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지에서 출발한다. 실제 이집트 전역에서 토트를 봉헌한 모든 신전에는 책(파피루스)의 집 또는 페르 앙크 내에 도서관을 부설하였고(Richardson, 1963, 70), 우주의 창조신 아문-라(Amun-Ra)의 '신성한 책의 수호자'로 지칭된 신관·서기관·사서¹⁷⁾가 파피루스에 필사·보존하였다. 다만, 책의 집이 신전 내 소규모 도서관이라면 페르 앙크는 신전에 인접

14)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창시한 키루스 대왕(Cyrus the Great, 재위 BC 559-530)은 이집트 아모세 2세(Ahmose II, 재위 BC 570-526)에게 최고 안과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0), 헤로필로스(Herophilos, BC 335-280), 에라시스트라투스(Erasistratus, BC 310-250), 갈렌(Galen, BC 130-210) 등도 이집트에서 공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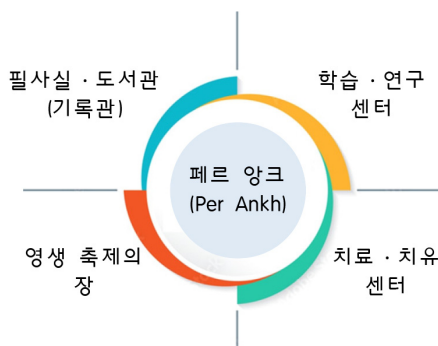
15) 이집트어 'hrj-h3b'를 번역한 강사-신관은 통상 '주문 암송을 통해 파피루스 내용을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마술과 매우 밀접한 수석 강사-신관은 후에 마술사를 지칭하는 'hrj-tp'로 일반화되었다. 그들은 신성한 책, 마법과 의학을 신격화한 헤카(Heka)의 힘, 마아트(Maat) 보존, 우주적 질서, 신비주의적 승천, 신과의 동화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16) 의사는 자신이 호루스의 손상된 눈을 치료한 마법과 지식의 신 토트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주요 신전의 신관들은 태양신 라(Ra)가 그 숙적인 혼돈·어둠의 신 아페(Apep, 거대한 독사)를 저주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17) 신관·서기관이 사서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사서는 '문헌의 여인, 책의 집 여주인'으로 별칭되었다.

한 대형 도서관을 포함하는 일종의 아카데미였다(Zinn, 2012, 4061). 따라서 신왕국 이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는 주제를 망라한 지식과 지혜를 집적한 보고였다는 측면에서 도서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고대 이집트 신전에는 성소, 왕실, 사제실, 행정실, 곡물 창고, 책의 집, 페르 앙크, 주거지 등 다양한 건물이 공존하였다. 신전이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페르 앙크 내의 도서관과 학교는 지적 및 영적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부설된 ‘책의 집’은 일상용 책을 보관한 반면, 대개 신전에 인접한 페르 앙크는 <그림 5>처럼 학습·연구센터, 의료시설과 요양원을 갖춘 치료·치유센터, 영생축제의 장, 필사실과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복합시설이었다. 페르 앙크는 후대 프톨레미 무세이온의 기반적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혜의 집과 중세 유럽 대학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Wilkinson, 2000, 74). 그럼에도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 로마 자유신전, 바그다드 지혜의 집을 각각 도서관으로 단정하면 논리적 비약이듯이 ‘페르 앙크 = 도서관(기록관)’도 온당한 시각이 아니다.



<그림 5> 페르 앙크의 복합적 정체성

3.3 ‘도서관 = 영혼의 치유소’ 논쟁

고대 이집트 신전의 전형적 구조는 출입구 탐문(pylon), 많은 기둥이 천장을 지탱하는 개방형 중정(open court)과 다주실(hypostyle hall), 페르 앙크, 성소, 외벽 등으로 구성되었다. 카르나크, 룩소르, 아부심벨, 아비도스 등의 신전구조가 대변한다.

그 가운데 라메세움(Ramesseum)은 신왕국 제19왕조 제3대 파라오로 등극한 람세스 2세(Ramesses II)가 BC 1290년에서 1250년까지 룩소르 건너편 테반 네크로폴리스(Theban Necropolis)에 건립한 장제전이다.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BC 4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카타이우스(Hecataeus of Abdera, BC 360-290)가 신관들과 함께 테베(현 룩소르)를 방문한 후 BC 320-305년 저술한 여행 가이드북 『Aegyptiaca』에서 라메세움 다주실 문패에 고대 그리스어로 새겨진 ‘Ψυχῆς ἰατρεῖον’을 처음 언급하였다. 이어 BC 60-30년 디오도로스(Diodorus Siculus, BC c.90-c.20)는 역저 『역사총서』(Βιβλιοθήκη Ἱστορικῆ, 전40권) 제1권(문단 49, 행 3)에서 헤카타이우스가 언급한 ‘Ψυχῆς ἰατρεῖον’을 신성한 도서관(τὴν ἱερὰν βιβλιοθήκην)의 모토로 간주하여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A Place of Healing for the Soul)으로 의역하였다(Hendrickson, 2017, 176).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Oldfather, 1990, 164-165).

이것은 Osymandyas[람세스 2세]의 기념비다. . . . 통로 3개는 길이 60야드 열주홀로 이어졌다. 방에는 소송인 목재 조각이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한쪽 벽에 조각된 채관관들을 향하고

있었다. 재판관은 중앙에 배치된 최고 재판관을 포함해 총 30명이었으나 손이 없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바닥에는 두루마리가 산적해 있었다. 이어 산책로를 통과한 방에는 풍부한 음식물과 형형색색의 부조로 둘러싸여 있었다. . . . 그 다음에는 ‘영혼을 위한 병원’이라고 새겨진 신성한 도서관이 있었다(ἐξῆς δ’ ὑπάρχειν τὴν ἱερὰν βιβλιοθήκην, ἐφ’ ἧς ἐπιγεγράφθαι ‘ψυχῆς ἰατρεῖον’) . . . 인접한 홀에는 20인용 소파와 대형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고, 제우스·헤라·왕의 조각상이 있었다. 왕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것 같다. . . .

그리고 1472년 이탈리아 학자 겸 초기 인문주의자 포조(Poggio Bracciolini, 1380-1459)가 볼로냐에서 번역·출판한 라틴어 버전 『Bibliotheca historica』(전5권)에 다시 인용한 후 이집트의 신전, 도서관사, 독서치료, 의학과 마법, 교육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와 현직자(Nichols, 1964; Lutz, 1978, 36-39; Casson, 2001, 16; Cunningham, 2010, 36; Zulu, 2012, 1-26)가 ‘영혼의 치유(진료)소, 병원, 약국’ 등으로 역칭·인용함에 따라 도서관을 상징하는 모토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감안하면 왜곡, 왜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고대 그리스어 ‘Ψυχῆς ἰατρεῖον’에서 Ψυχῆς는 영혼·정신·생명을, ἰατρεῖον는 병원·진료소·클리닉을 의미한다. 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Psychēs iatreion’¹⁸⁾이고, 현대적 의미는 ‘영혼의 치유소’(Healing Place of The Soul)다. 그런데 프시케(Psychēs)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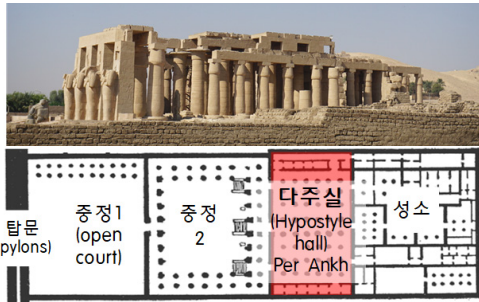
리스·로마 신화에서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미모의 여신을, 이아트레이온(iatreion)은 진료소와 약국을 의미하므로 조합하면 ‘영혼의 진료(치유)소 내지 병원·약국’이다. 따라서 라메세움의 ‘Psychēs iatreion = βιβλιοθήκην’는 왜곡이다.

둘째, 고대 이집트인은 내세와 영생을 염원하였고, 미라를 통해 망자의 ‘카’(Ka, 영혼)가 환생한다고 믿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라메세움 내 열주형 다주실 문패의 ‘Psychēs Iatreion’에서 프시케(영혼)는 신격화된 람세스 2세의 ‘카’를 지칭한다. 게다가 라메세움 내부에는 방문자를 위해 파라오 조각상, 벽면 선반과 파피루스 두루마리, 소파와 긴 의자를 배치한 공간이 다음 홀(람세스 2세 침상)을 향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주실 문패에 현혹되어 ‘도서관 = 영혼의 치유소’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Canfora, 1990, 77-80, 147-160).

셋째, 고대 이집트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는 주로 지배계층을 위한 신화와 종교, 장례문서, 과학·의학·마법서, 서사적 텍스트 등을 필사·보존하였다. 반면에 영묘(靈廟, mausoleum)인 라메세움의 페르 앙크는 파라오가 성소와 영생 공간에 진입하는 관문이었다. 두 번째 중정을 지나면 〈그림 6〉처럼 3개 공간으로 구성된 개방형 다주실인 페르 앙크 외에 태양신 라와 창조신 프타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는 천문실(Astronomy Room)과 기도실(Litanies Room)이 있었다(Marshall, 2017, 40; Lecuyot, 2000). 따라서 헤카타이우스가 도서관(βιβλιοθήκην)을 언급하였는지 의문이고, 디오도로스가 기도실

18) 양자를 조합한 단어가 정신의학(psychiatry)이고, 철학학교도 ‘영혼의 병원’(Iatreion tes Psūkhês)이었다.

이나 다주실 선반 또는 페르 앙크를 신성한 도서관으로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Hendrickson, 2017, 176-178).



〈그림 6〉 라메세움 배치도와 페르 앙크 위치

넷째,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대다수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는 신들을 모신 성소를 중심으로 파라오, 왕족과 귀족, 고급관리, 신관과 서기관 등을 위한 학습·연구센터, 치료(치유) 중심지, 필사실과 도서관을 겸한 다목적 복합공간이다. 반면에 라메세움은 장제전이고, 그 내부에 람세스 2세의 영혼을 치유하는 페르 앙크가 있었다. 그럼에도 디오도로스는 페르 앙크의 복합적 성격과 기능을 무시한 채 라메세움의 다주실 문패에 기록된 ‘Ψυχῆς ἰατρειῶν’를 신성한 도서관(τὴν ἱερὰν βιβλιοθήκην)의 문패로 간주하고 의역하였다. 그것은 라메세움에 부설된 도서관을 지칭한 모토가 아니라 장제전의 다증성과 파라오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방점을 둔 페르 앙크에 부여한 메타포다.

4. 요약 및 결론

고왕국 수도 멤피스에서 중왕국과 신왕국의

테베를 거쳐 프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개화한 이집트 문명의 기념비적 흔적이 피라미드라면, 종교적 성지는 신전이다. 양자에 등지를 튼 토트와 세샤트의 화신인 페르 앙크를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신전, 부조와 기념비, 천개(天蓋), 파피루스 등에 상형문자를 기록·채색하였다. 고왕조에서 책(mdjt)의 보통명사가 파피루스 두루마리였다면, 그것의 대명사는 신화와 종교, 왕조와 역사, 문예와 과학, 내세관이 집적된 ‘사자의 서’다. 당시 도서관의 범용어는 pr(집)를 선치시킨 책의 집(pr-mdjt)이었으며, 위치나 규모를 불문하고 신전도서관으로 통칭하였다.

다음으로 초기 왕조 때 등장한 앙크(Ankh, 𓆎)는 상단 타원형 고리와 하단 십자를 조합한 상형기호다. 그 기원과 상징은 이시스의 매듭, 하늘(여성)과 지상(남성)의 결합, 남녀 생식기와 잉태, 죽음과 영생의 열쇠, 마법과 부적 등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리고 페르(집, 𓆎)와 앙크(생명, 𓆎)를 조합한 페르 앙크(Per Ankh, 𓆎𓆎)는 학습·연구센터, 치료·치유소, 의식·축제의 장, 필사실과 도서관 등이 혼재하는 복합시설이었다. 그럼에도 ‘페르 앙크 = 도서관’으로 단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마지막으로 신왕국 람세스 2세가 건립한 라메세움(장제신전)의 다주실 문패에 기록된 ‘Ψυχῆς ἰατρειῶν’는 BC 4세기 헤카타이우스가 처음 소개하였고, BC 1세기 디오도로스가 라틴어로 ‘Psychēs iatreion’로 의역하였다. 그러나 프시케(Psychēs)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여신, 이아트레이온(iatreion)은 병원(진료소,

치유소)·약국이다. 대다수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는 학습·연구센터, 치료·치유소, 필사실과 도서관 등을 위한 다목적 시설인 반면에 라메세움의 페르 앙크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영혼(Ka)을 치유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Psychēs iatreion = βιβλιοθήκην’은 왜곡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은 도서관의 모토가 아니라 페르 앙크의 메타포다.

요컨대 고대 이집트의 3000년 역사는 대하소

설과 같다. 그 가운데 고대 도서관의 원형을 추적하는 측면에서 최대 미스터리이자 난제 중의 하나가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다. 많은 쟁점이 잠복된 판도라 상자와 같다. 그럼에도 대다수 페르 앙크는 도서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장제전인 라메세움 내의 그것을 ‘영혼의 치유소 = 도서관’으로 단정한 것은 오역과 왜곡이자 와전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적 후속연구와 보완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Algarvio, Chana (2023). Re-examining “the Book” through Ancient Egyptian Tomb Walls. *Papers of the Bibliographical Society of Canada*, 60(1), 1-40.
- Birchette, Kathleen P. (1973). The history of medical libraries from 2000 B.C. to 1900 A.D.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1(3), 302-308.
- Budge, E. A. W. (1920). *An Egyptian Hieroglyphic Dictionary*, Vol.1. London: John Murray.
- Budge, E. A. W. (1989). *Tutankhame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unson, Margaret R. (2002).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Rev. ed. New York: Facts On File.
- Canfora, Luciano (1989). *The Vanished Libr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sson, Lionel (2001).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unningham, Jeffrey J. (2010). *The Role of Learning Institutions in Ptolemaic Alexandria*. Master's thesi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United States.
- El-Gammal, Samir Yahia (1993). Pharmacy and medicine education in ancient Egypt. *Bulletin of the Indian Institute of History of Medicine(Hyderabad)*, 23(1), 37-48.
- Gardiner, Alan H. (1938). The house of life.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4(2), 157-179.
- Goedicke, Hans (1963). Was magic used in the Harem Conspiracy against Ramesses III?.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9, 71-92.
- Gordon, Andrew H. & Schwabe, Calvin (2004). *The Quick and the Dead: Biomedical Theory in Ancient Egypt*. Leiden: Brill.

- Hagen, Fredrik (2019). Libraries in Ancient Egypt, c.1600-800BCE. In Ryholt, Kim and Barjamovic, Gojko. *Libraries before Alexandria: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44-318.
- Hall, T. (2014). *History of Medicine: All That Matters*. London: Hachett.
- Hendrickson, Thomas (2017). *Ancient Libraries and Renaissance Humanism: The De bibliothecis of Justus Lipsius*. Leiden: Brill.
- Hernández, R. A. Díaz (2017). The Egyptian temple as a place to house collections(from the Old Kingdom to the Late Period).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03(1), 3-11.
- Ignatov, Sergei (2004). Word and image in Ancient Egypt. *The Journal of Egyptological Studies*, 1, 9-32.
- Khan, Fazil (2013). Ancient libraries of Egypt. *UOS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1), 87-96.
- Kozodoy, R. (1971). The origin of early Christian book illumination: the state of the question. *Gesta*, 10(2), 33-40.
- Lecuyot, Guy (2000). *The Ramesseum(Egypt):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 Paris: CNRS.
- Lundquist, John M. (1993). *The Temple: Meeting Place of Heaven and Earth*. London: Thames and Hudson.
- Lutz, Cora, E. (1978). The oldest library motto: ψyxho latpeion. *Library Quarterly*, 48(1), 36-39.
- Marshall, Amandine (2017). Excavating at the Ramesseum. *Ancient Egypt Magazine*, 104(18.2), 36-43.
- Muc, Agnieszka (2008). Crux ansata: remarks on the meaning of the symbol and its use on Coptic funerary stelae. *Studies in Ancient Art and Civilization*, 12, 97-103.
- Nichols, Charles, L. (1964). *The Library of Rameses the Great*. Berkeley, CA: Peacock Press.
- Oldfather, C. H., trans. (1933). *Diodorus Siculus: Library of History, Vol.I(Books 1-2.3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endlebury, J. D. S. (1934). Excavations at Tell el Amarna: preliminary report for the season 1933-4.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0(3/4), 129-136.
- Porcaro, David, S. (2002). Sacred libraries in the temples of the near east. *Studia Antiqua*, 2(1), 63-69.
- Richardson, Ernest, C. (1963). *The Beginnings of Libraries*. Hamden, Conn.: Archon Books.
- Scalf, Foy, ed. (2017). *Book of the Dead: Becoming God in Ancient Egypt*.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 Schullian, Dorothy, M. (1990). History of libraries: beginnings to 1600. In *Encyclopedia Americana*,

- Vol.17. Danbury, CT: Grolier Incorporated, 310-313.
- Serageldin, I. (2013). Ancient Alexandria and the dawn of medical science. *Global Cardiology Science and Practice*, 4, 395-404.
- Snape, Steven (1996). *Egyptian Temples*. Oxford: Shire Publications.
- Thompson, J. W. (1940). *Ancient Librar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bb, Kerry (2013) 'The house of books': libraries and archives in Ancient Egypt. *Libri*, 63(1), 21-32.
- Webb, Stephen (2018). *Clash of Symbols: A Ride Through the Riches of Glyphs*. Cham, Switzerland: Springer.
- Wilkinson, R. H. (2000). *The Complete Temples of Ancient Egypt*. London: Thames and Hudson.
- Zinn, Katharina (2012). Libraries, pharaonic Egypt. In Bagnall, Roger S.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Ancient History*. Malden, MA: Wiley-Blackwell, 4061-4062.
- Zulu, Itibari, M. (2012). The ancient Kemetic roo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5(1), 1-26.